

# numbers 제 34호



## 주요 내용

2020. 02.14

1.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2.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3. 넘버즈 칼럼 \_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을 경험하면서...”(김지철 목사)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http://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 일반사회통계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어느날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이야기를 했다. 종일 일에 파문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면 현관문에 나와 반갑게 맞아주는 식구는 강아지 밖에 없다는 것이다. TV를 켜면 어느새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이 자주 눈에 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타는 경우가 점점 잦다. 현재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3가구 가까이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미국은 무려 68%나 된다. 반려동물 양육자 두 명 중 한 명은 자신의 고민을 말 못하는 반려동물에게 털어 놓는다. 반려동물은 그들에게는 가족이면서 생활의 기쁨이요 위로자가 되어버린 것 같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34호**는 우리 곁에 부쩍 다가와 있는 **반려동물 실태와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국내에서는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과거에는 애완동물(Pet animal)로 불리다가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움에서 동물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가 개, 고양이, 새 등의 애완동물 가치를 재인식하여 “반려동물”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해서, 현재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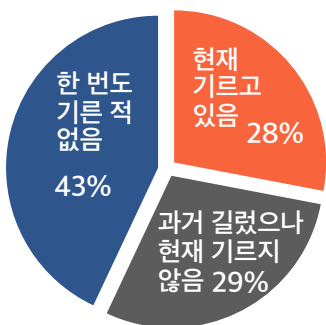
최근에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펫팸족(pet과 family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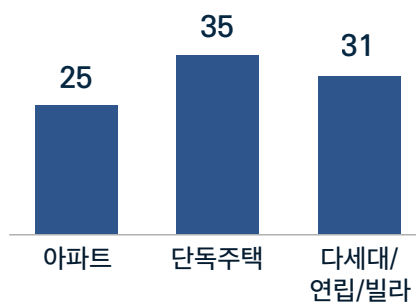
## 반려동물 ‘현재 기르고 있다’, 전국 가구의 28%

-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전국의 28%로 조사됨
- 우리 국민 절반 이상(57%)이 반려동물을 길러본 경험(현재+과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파트 거주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음
- 1인 가구의 경우 19%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8년 반려동물조사’)
- 참고로 미국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68%로 한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됨 (2017년 기준 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

[그림] 반려동물 양육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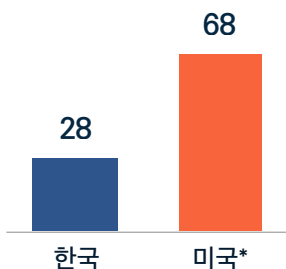


[그림] 반려동물 양육 비율 (주택 유형별) (%)



\*자료 출처 : 사)한국펫사료협회/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 보고서', 2018.12.24 (전국 만 19세 이상, 2000명, 전화 조사, 2018년 9월 조사)

[그림] 반려동물 양육 비율(한국 vs 미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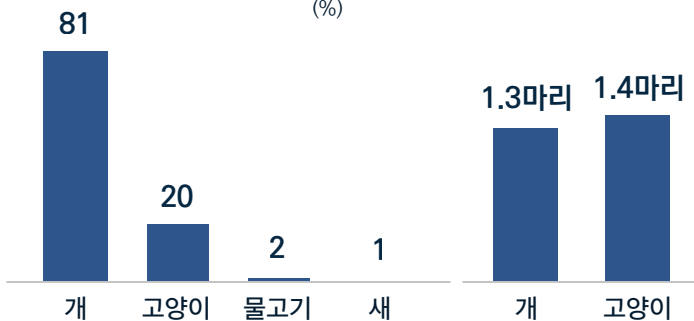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 2017년 기준, 중앙일보 '반려동물 1000만 인구 펫 산업 2020년 6조원대로...핵심 펫푸드 산업, 국산 경쟁력 강화 시급', 2017.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1945315>

## ● 양육 중인 반려동물, '개' 81%, '고양이' 20%

- 현재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은 '개'가 81%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고양이' 20%로 두 반려동물이 대부분을 차지함
- '개'의 경우 평균 1.3마리를 기르는데, 4가구 중 1가구(26%)는 2마리 이상을 기르고 있음
- '고양이'는 '개'보다 많은 1.4마리를 기르는데, 2마리 이상을 기르는 가구는 28%로 조사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양육 비율, 가구당 반려동물 수를 종합해서 전체 양육 중인 개/고양이 수를 집계한 결과, 개는 666만 마리, 고양이는 177만 마리로, 두 반려동물을 합해 전국에 843만 마리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양육 중인 반려동물(중복) (%)



[그림] 양육 중인 반려동물 수(평균)\*\*

[표] 양육 중인 전체 개/고양이 수\*\*\*

개	666만 마리
고양이	177만 마리
합계	843만 마리

\*자료 출처 : 사)한국펫사료협회/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 보고서', 2018.12.24 (전국 만 19세 이상, 2,000명, 전화 조사, 2018년 9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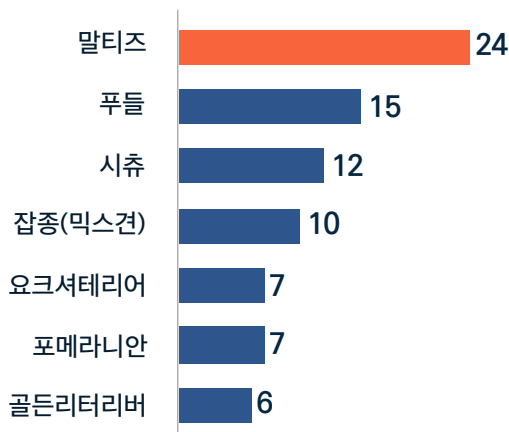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동일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반려동물 양육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8년 9월 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0년 1월 22,513,039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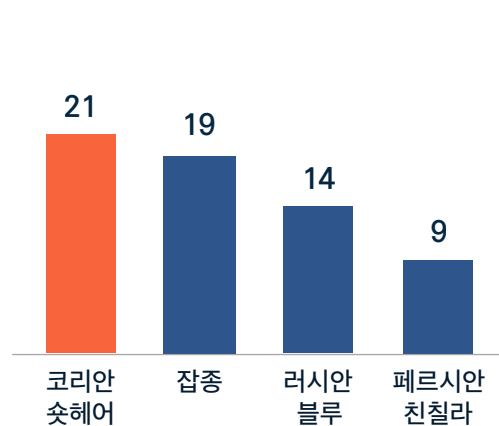
## ● 반려동물 중 개는 '말티즈', 고양이는 '코리안숏헤어'가 가장 많음

- 개 종류로는 '말티즈'가 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푸들' 15%, '시츄' 12%, '잡종(믹스견)' 10% 등이 순임
- 고양이 종류로는 '코리안숏헤어', '잡종', '러시안블루', '페르시안친칠라' 등의 순임

[그림] 양육 중인 개 종류(상위 7위) (%)



[그림] 양육 중인 고양이 종류(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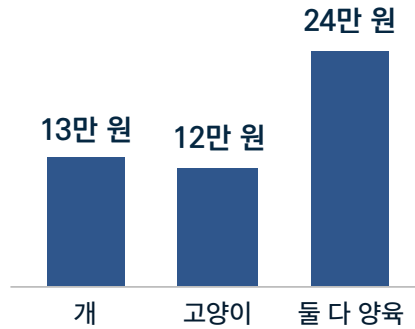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사)한국펫사료협회/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 보고서', 2018.12.24 (전국 만 19세 이상, 반려동물 양육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8년 9월 조사)

●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 ‘개’ 13만 원, ‘고양이’ 12만 원

-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는 평균 ‘개’ 13만 원, ‘고양이’ 12만 원으로 ‘개’ 양육비가 ‘고양이’보다 약간많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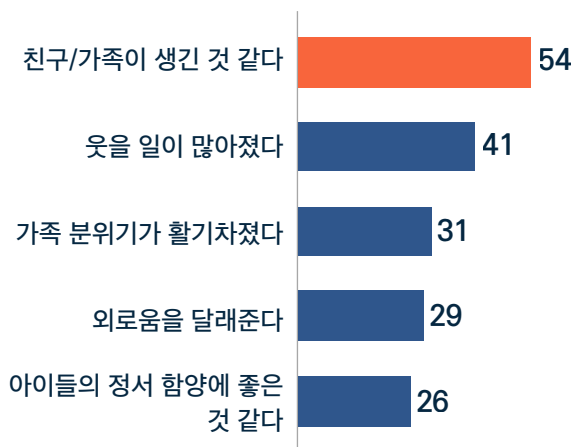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8년 반려동물 보고서', 2018.12.05.  
(만 20세 이상 반려동물 양육자 700명, 모바일 조사, 2018.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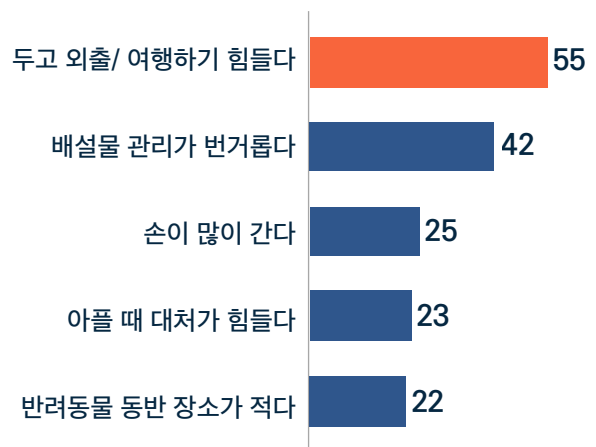
반려동물 양육 시, 장점 : ‘친구/가족 생김, 웃을 일이 많아짐’  
단점 : ‘외출/여행 어려움, 배설물 관리’

- 반려동물 양육 장점으로 ‘친구/가족이 생겨서’(54%), ‘웃을 일이 많아져서’(41%) 등을 높게 응답함
- 반려동물 양육 단점으로 ‘외출/여행하기 어렵다’(55%), ‘배설물 관리 번거롭다’(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반려동물 양육의 장점(양육 경험자, 상위 5위) (%)



[그림] 반려동물 양육의 단점(양육 경험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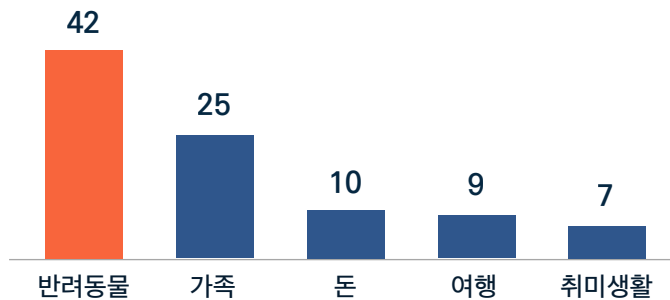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반려동물 양육 경험 및 인식조사", 2019.12.27.(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년 12월 조사)

# 3

## 반려동물 양육자, 생활의 기쁨을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음

- 생활에 있어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반려동물’이 4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가족’ 25%, ‘돈’ 10%, ‘여행’ 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생활에서 가장 기쁨을 주는 것(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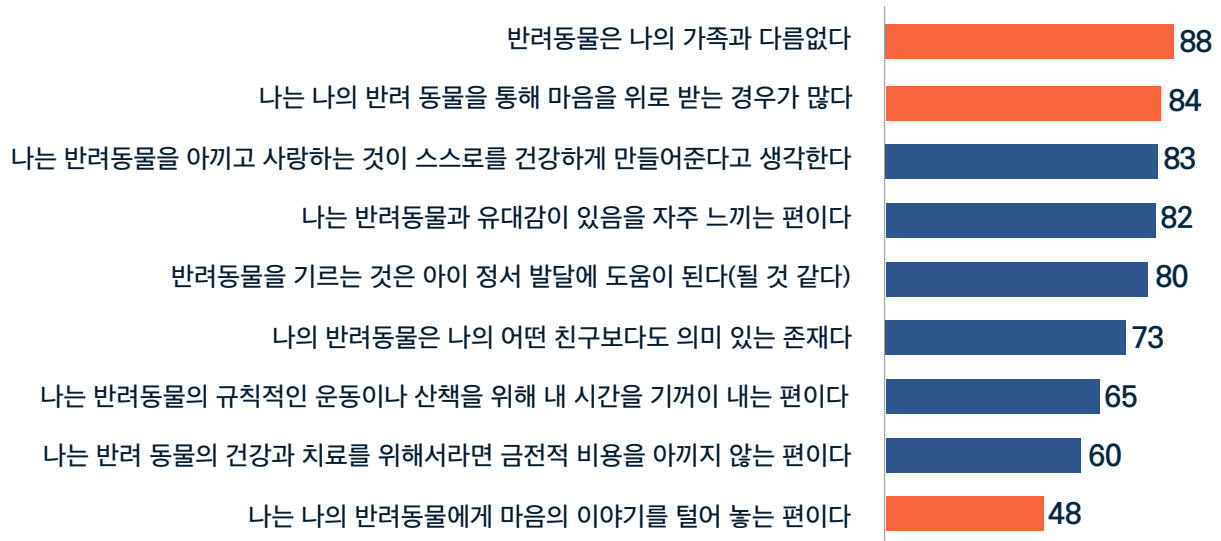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사)한국펫사료협회/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 보고서', 2018.12.24 (전국 만 19세 이상, 반려동물 양육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8년 9월 조사)

### ● 반려동물 양육자의 84%, ‘반려동물에게서 위로를 받는다’

-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반려동물에 대해 유대감과 친밀감을 크게 느끼는데, 특히 84%의 응답자가 ‘반려동물에게서 위로를 받는다’고 고백함
- 88%는 반려동물이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절반 가량은 반려동물에게 마음의 이야기를 털어 놓고 있음

[그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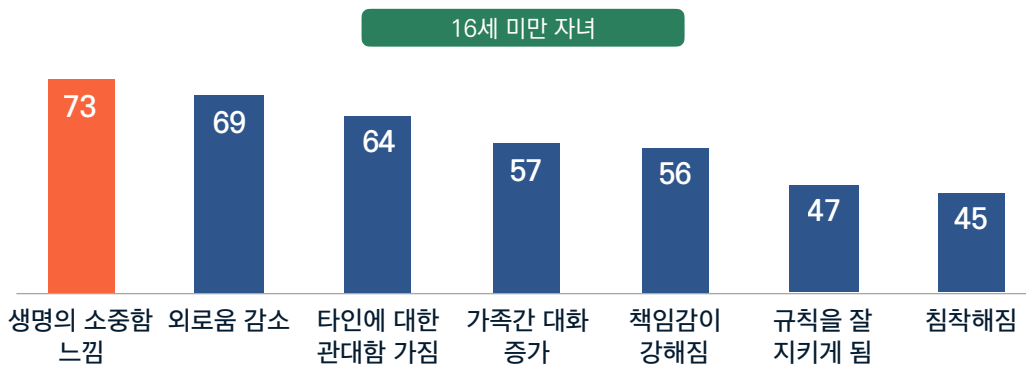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반려동물 양육 경험 및 인식조사', 2019.12.27.(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년 12월 조사)  
 \*\*'그렇다', '아니다', '잘 모름' 중 '그렇다' 비율

# 4 반려동물로 인한 변화

## ● 16세 미만 자녀, '생명의 소중함 느낌'(73%), '외로움 감소'(69%)

- 반려동물 양육 전후를 각 항목별 변화를 파악해 보았는데, 16세 미만 자녀의 경우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이해하게 됨' 73%, '외로움을 덜 타게 됨' 69%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됨

[그림] 반려동물로 인한 변화(각 항목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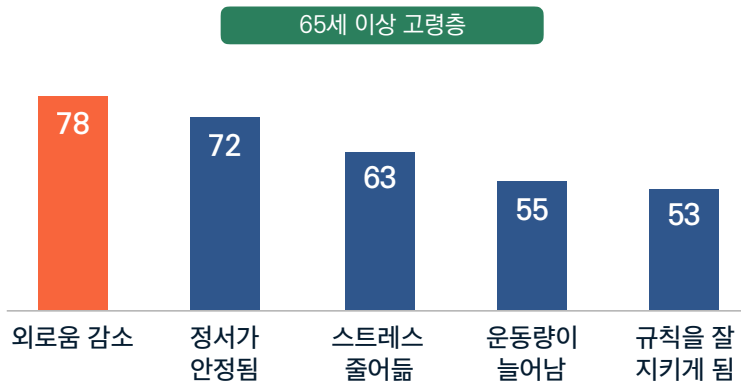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사)한국펫사료협회/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 보고서', 2018.12.24 (전국 만 19세 이상, 반려동물 양육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8년 9월 조사)

\*\* '매우그렇다', '그런 편이다', '변화 없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사항 없음' 중 '매우그렇다+그런 편이다'를 합한 비율임

## ● 65세 이상 고령층, '외로움 감소' 78%, '정서 안정' 72%

- 65세 이상 가정내 고령층의 경우 반려동물로 인해 '외로움 감소'와 '정서적 안정'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반려동물로 인한 변화(각 항목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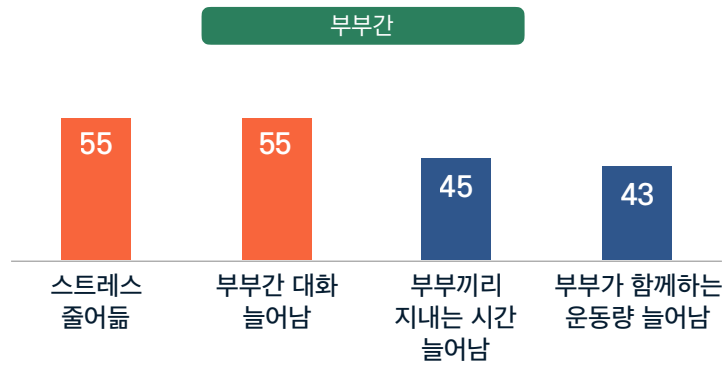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사)한국펫사료협회/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 보고서', 2018.12.24 (전국 만 19세 이상, 반려동물 양육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8년 9월 조사)

\*\* '매우그렇다', '그런 편이다', '변화 없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사항 없음' 중 '매우그렇다+그런 편이다'를 합한 비율임

### ● **부부간, ‘스트레스 감소’ 55%, ‘대화 증가’ 55%**

- 반려동물 양육으로 인해 부부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부부가 대화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남

[그림] 반려동물로 인한 변화(각 항목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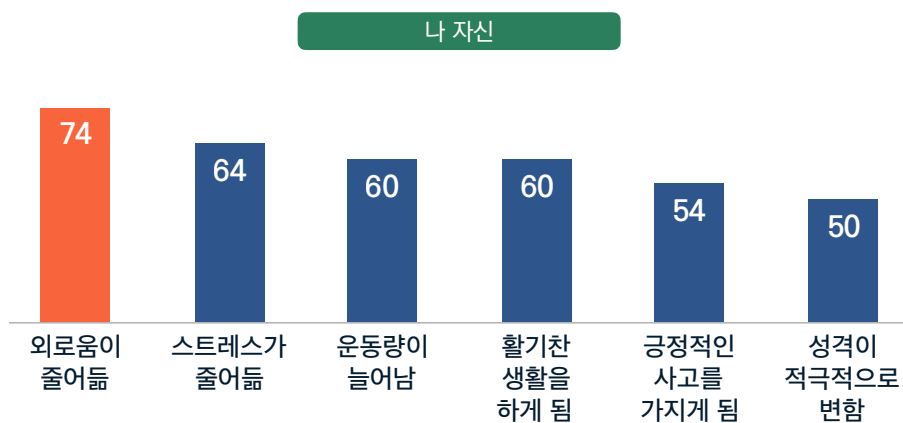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사)한국펫사료협회/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 보고서', 2018.12.24 (전국 만 19세 이상, 반려동물 양육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8년 9월 조사)

\*\* '매우그렇다', '그런 편이다', '변화 없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사항 없음' 중 '매우그렇다+그런 편이다'를 합한 비율임

### ● **나 자신, ‘외로움 감소’(74%)와 ‘스트레스 감소’(64%)**

- 나 자신의 경우 외로움이 감소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그림] 반려동물로 인한 변화(각 항목별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사)한국펫사료협회/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 보고서', 2018.12.24 (전국 만 19세 이상, 반려동물 양육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8년 9월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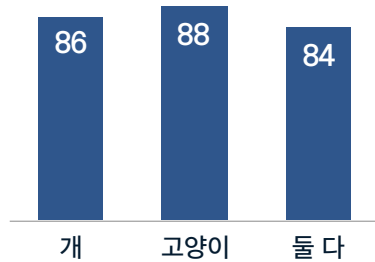
\*\* '매우그렇다', '그런 편이다', '변화 없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해당사항 없음' 중 '매우그렇다+그런 편이다'를 합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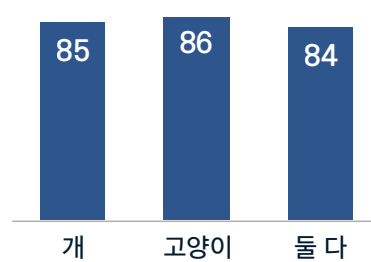
## 5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

-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만족도(7점 척도 기준 5점 이상)는 8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지속 양육 의향 역시 85%로 매우 높음

[그림]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 (%)



[그림] 반려동물 지속 양육 의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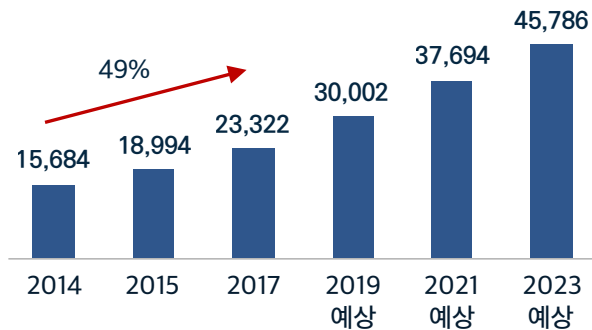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8년 반려동물 보고서', 2018.12.05. (만 20세 이상 반려동물양육자 700명, 모바일 조사, 201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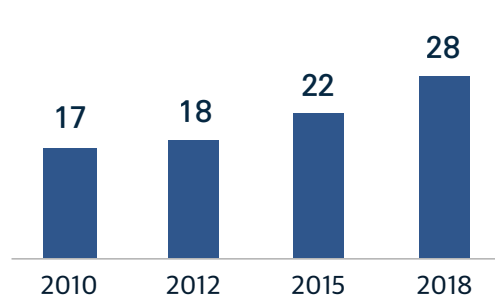
## 6 국내 반려동물 시장, 최근 3년간 49% 성장

-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1-2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양육 수요도 늘어 최근 3년간 49% 성장을 기록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그림]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연도별)\* (억 원)



[그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연도별)\*\* (%)



\*자료 출처 : 농촌경제연구소(2017)/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8년 반려동물 보고서', 2018.12.05. (만 20세 이상 반려동물양육자 700명, 모바일 조사, 2018.11)

\*\*자료 출처 : 2015년까지의 수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검역부,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2017.12)에서 인용하였고, 2018년 수치는 사)한국펫사료협회/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 보고서'에서 인용하였음

## 6 시사점

휴일에 공원 등에 나가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전국 가구의 28%인데 현재는 키우지 않지만 과거에 키운 가구까지 포함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낸 비율이 57%나 된다(3쪽).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한다(5쪽). 사료, 배변패드 등 일상용품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아파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꽤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혼자 두고 외출이나 여행을 하기도 어렵다(5쪽). 또 그분인가? 반려견이 자주 짖거나 산책 중에 만나는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이라도 보인다면 이웃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나 생활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반려동물이 '가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6쪽).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29.8%나 되고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도 29.6%로서 1인 가구 혹은 부부 가구가 59.4%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외로움에 취약한 사회이다(넘버스 29호 '2020년, 1인가구 대세 시대' 참조). 또한 현대인들은 굳이 인간 관계를 넓히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 때문에 인간 관계를 축소하려는 트렌드를 보인다(넘버스 14호 '한국인, 인간 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참조).

혼자 지내는게 불편하지 않지만 그 속에 내재한 근원적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은 축소된 인간 관계의 빈자리를 반려동물로 채우고 있다. 반려동물로부터 외로움을 달래거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과 정신적 건강함까지 높이고 있다(6쪽).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이번 반려동물을 주제로 정한 것은 이제 한국 교회가 반려동물에 대해 교회적 차원에서, 신학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논의를 기대해 본다.

##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 인식 변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 피해 현황 결과

##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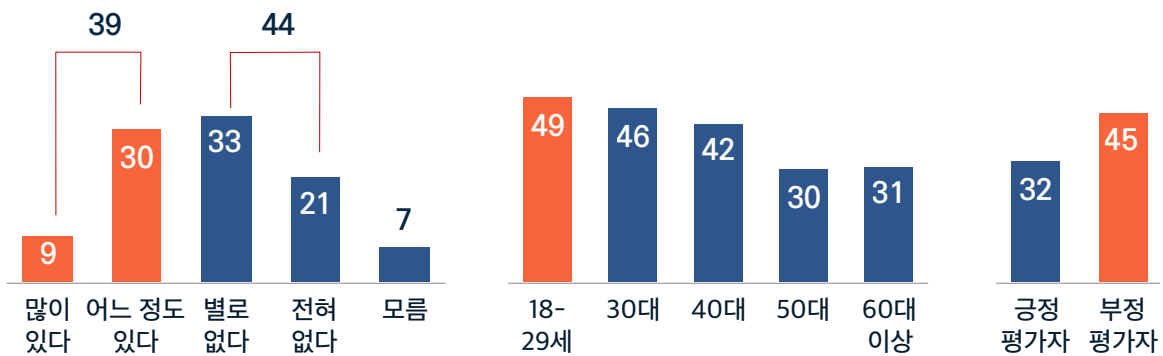
## 우리 국민 39%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 있다’고 인식함

- 한국갤럽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자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매우+어느정도) 39%, ‘없다’(전혀+별로) 44%로 10명 중 4명 정도가 자신의 감염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의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뚜렷한데 특히 대통령 직무에 부정 평가자가 긍정 평가자보다 높아,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그림] 자신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

[그림] 자신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있다’ (매우+어느정도, 연령별) (%)

[그림]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vs 부정) (%)



\*자료 출처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388호', 2020.02.13.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전화 면접 조사, 2020.02.11~13)

### ● 메르스 때보다 마스크 착용률, 손 세척률 훨씬 높음

- 이번과 메르스 때(2015년)의 마스크 착용과 손 세척 정도를 비교한 결과, 마스크 착용률은 메르스 때는 15%, 이번 코로나19 때는 무려 79%로 큰 차이를 보였음
- 또한 평소보다 손을 더 자주 씻는지 ‘손 세척 정도’를 물은 결과 메르스 때는 60%, 이번 코로나19 때는 80%로, 역시 이번이 메르스 때보다 손 세척률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마스크 착용 경험(메르스 vs 코로나19) (%)

[그림] 손 세척 경험(메르스 vs 코로나19) (%)



\*자료 출처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387호', 2020.02.06.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전화면접조사, 2020.01.04~06)

# 2

## 코로나19 이후, 가족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혐오' 동시에 늘어남

- 코로나19 발생으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았는데, '내 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3명 중 2명 정도(66%)로 나타남
- 반면 '중국인들이 싫어졌다'는 부정적 인식도 46%로 비교적 높음
- 또한 5명 중 3명은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을 듣거나 본 적 있다'고 응답함
- '코로나19로 인해 일상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해, 코로나19가 우리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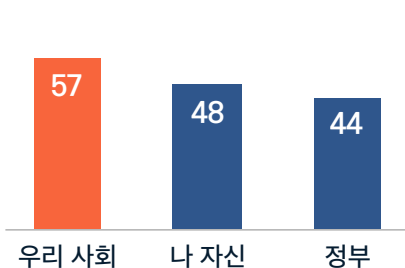


\*자료출처 : 엠브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식 조사', 2020.02.07.(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2,000명, 온라인 조사, 2020.1.3-2.2)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서울대 보건대학원 윤명순 교수팀, '신종 코로나, 감염도 두렵지만... 주위 비난 더 무서워', 2020.02.07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7043100017)

### ● 코로나19 대응, '정부'보다 '우리 사회' 전체가 잘 대응한다는 인식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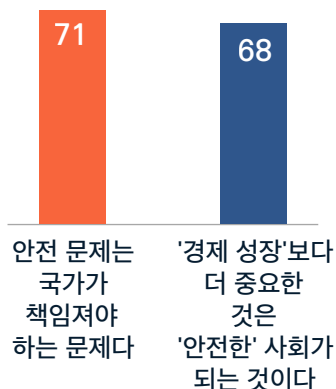
- '메르스 때 대비 이번 코로나19 때 대응 수준 평가는 '우리 사회'(57%), '나 자신' (48%), '정부'(44%) 순으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함
-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국가 책임'이라고 응답하였고, 68%가 '경쟁 성장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해, 국가의 안전 책임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메르스 대비 코로나19 대응수준 평가 ('잘하고 있다' 응답률)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서울대 보건대학원 윤명순 교수팀, '신종 코로나, 감염도 두렵지만... 주위 비난 더 무서워', 2020.02.07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7043100017)

[그림]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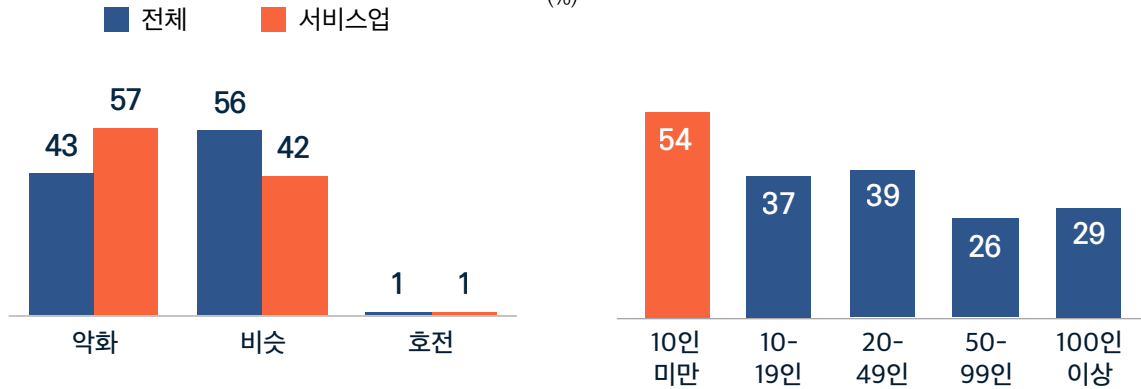


\*자료출처 : 엠브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식 조사', 2020.02.07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2,000명, 온라인 조사, 2020.1.3-2.2)

### 3 중소기업 5곳 중 2곳, 코로나19로 인해 체감 경기 '악화'

-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주요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1월 20일)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체감 경기에 대해 '악화' 43%, '비슷' 56%, '호전' 1%로, '호전'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음
- 업종별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업보다는 숙박/음식업에서 '악화' 인식이 높고, 종업원 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서 특히 '악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전과 비교한 체감 경기\*\* [그림] 종업원수별 체감 경기(전체), '악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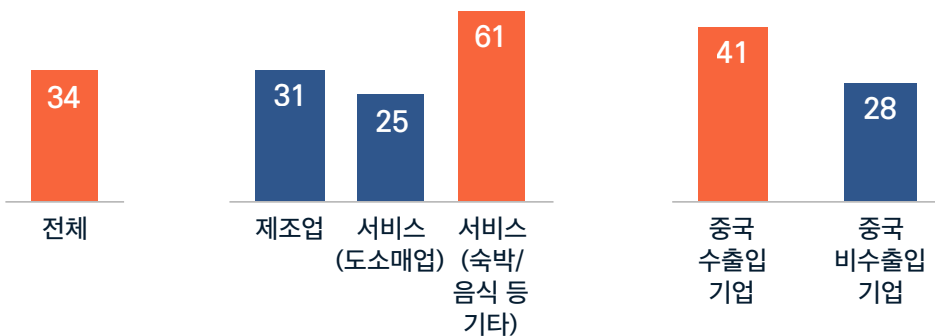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의견조사', 2020.02.10.  
 (중국 수출입 또는 현지 법인 보유 중소기업과 국내 도소매/서비스 중소기업 250개, 전화 조사, 2020.2.4-2.5)  
 \*\* 5점 척도 문항으로 '악화'는 '매우 악화+다소 악화' 합한 수치이고 호전은 '매우 호전+다소 호전'을 합한 수치임

### ● 숙박/음식업의 61%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 받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피해)을 받고 있는지 묻은 결과, '받고 있다' 34%, '받고 있지 않다' 60%로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실제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수출입이 있는 기업'이 '중국과 수출입 없는 기업'보다 타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피해) '받고 있다' 비율 (%)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의견조사', 2020.02.10.  
 (중국 수출입 또는 현지 법인 보유 중소기업과 국내 도소매/서비스 중소기업 250개, 전화 조사, 2020.2.4-2.5)

##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 [청소년 '학교통일 교육' 실태 조사](#)

연합뉴스\_2020.02.11

“남북경색에 청소년 대북인식 악화…10명중 3명 ‘北은 경제대상’”



#### [밥, 잘 먹고 다니니?](#)

시사인\_2020.02.12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아이들의 ‘길밥 보고서’”



#### [탈북민 주류 사회 진입 시도](#)

매일경제\_2020.02.11

“K뷰티 CEO·정치권서 러브콜…탈북민에 대한 선입견 깨졌다”



####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백만 명](#)

연합뉴스\_2020.02.12

“대기오염에 세계 연 450만명 조기 사망... 한국은 4만명”



#### [퓨처어스 '2020 위험 보고서'](#)

한겨레신문\_2020.02.12

“과학자들이 꼽은 세계 5대 위험”



#### [가짜뉴스의 위험성](#)

국민일보\_2020.02.12

“단톡방에 판치는 가짜뉴스… 목회자가 중심 잡아야”

### 스토리가 있는 기사



#### [소문에 느린 삶이 주는 행복한 삶](#)

중앙일보\_2020.02.12

“굳이 알 필요 없는 것을 모르는 행복”



#### [‘까짓것 별거 아니네’가 주는 효과](#)

세계일보\_2020.02.06

“공황장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 [한국 정치의 부정적 모습](#)

조선일보\_2020.02.10

“한국 정치권의 경쟁이 추잡한 두 가지 이유”

## Numbers 칼럼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을 경험하면서...

김지철 목사

목회데이터연구소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코로나19 전염병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지구 전체를 암울하게 휘감고 있다. 매일 전염병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읽으면서 삶의 자리가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면서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한다. 나의 죄, 우리의 불의함 때문인가? 아니면 감추어진 또 다른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가?

성경이 자주 언급하는 엄중한 위기적 재난이란 대체로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 세 가지다. 이런 재난이 그 재앙을 당한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죄 때문인가?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눅 13장)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언급한다. 재난을 받을 때에 기억해야 할 일관된 사상은 그 속에 개인의 죄, 그리고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죄, 특히 힘 있는 자, 권력자의 죄악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어떤 고난과 재난을 누군가의 특정한 죄와 연관짓는 것은 우리의 오만한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죄로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무제한적인 욕망의 남용으로 인한 우리 모두의 죄악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더 겸허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회개이다. 이유는 더 큰 재난이 닥쳐올 것을 미리 막으라는 것이다(눅13,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른 하나는 지금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를 향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라는 요청이다. 그들은 곧 우리의 이웃이고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전염병 재난에 대해 성경은 바로 인간의 죄악이 그 중심에 놓여있다고 지적한다(대상 21장). 다윗이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면서 마음이 우쭐해졌다. 그리고 뜬금없이 인구조사, 특히 군대 장병으로 쓸만한 자의 숫자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악’으로 여겨졌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셨다. 1) 3년 기근이 임하게 할 것인지 2) 다윗이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 다닐 것인지 3)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인지를 택하라. 다윗은 전염병의 재난을 당하겠다고 결정한다. 바로 그 3일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통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 “하나님께 이르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대상 21,17)

다윗은 재앙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길을 보았던 것이다. 재난을 당할 때에 “권력자들이 회개하며 자기를 성찰하라!”는 사인으로 인식했다. 그 속에 권력자들의 사악한 불의와 교만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물질적, 정치 권력적, 영적으로 많이 가진 자가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이유이다.



## Numbers 칼럼

중국의 시진핑은 지난 1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염병은 마귀(악마·사탄)다. 우리는 마귀가 활개 치고 다니게 놔두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무신론을 신봉하는 21세기 공산주의 권력자의 입에서 아이러니하게 영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전염병이 무능한 정부와 권력자를 가려내는 ‘심판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것일까?

사탄과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 1) 우리의 평범한 눈에는 둘 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했으나 몸과 마음에 못된 증상이 나타난다. 육체적인 현상으로 발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 때론 설사, 구토, 두통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악성 폐렴이 발생한다. 그리고 서서히 호흡이 곤란증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한편, 정신적인 현상은 우리를 우울하게, 슬프게, 외로움과 억눌림의 느낌으로 우리를 좌절시킨다. 우리를 자기 연민, 죄책감으로 서서히 어두운 죽음의 자리로 내던지게 만든다.
- 2) 과장된 공포심을 만들어 우리로 불안하게 하고 위축시킨다. 현실적으로 각자도생이라는 이기성을 더욱 조장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감염시키는 엄청난 전염성을 지닌 악성 바이러스이다.
- 3)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피해가 생길 때에 상대방 탓으로 몰아간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종의 ‘혐오 바이러스’의 특성을 지녔다. 그래서 가족 해체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의 압력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 4)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파괴한다. 서로 만나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방해한다. ‘모이기를 폐하는 자’(히 10,25)처럼 ‘모이기를 즐겨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교회의 특성까지도 무너뜨린다.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현저하게 축소시키는 위기를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

- 1)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이다. 오늘도 해가 뜨고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학교에서 배우고/직장 나가서 일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으며 감사한다.
- 2) 이 위기를 초래한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부터 이런 재난이 다가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파괴적인 약탈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돌아보게 한다.
- 3) 우리 주위에 정말 연약한 자들이 누구인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웃들은 누구인가? 전세계적인 차별과 혐오의 분위기 속에서 혹 우리도 주변의 누군가를 차별하고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다 진지하게 묻고 실천할 때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더 겸손한 사람, 이웃과 함께 하는 더 긍휼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본다.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 · 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현빌딩 2층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mailto:jy0113@mhdata.or.kr)